

**Do Korean Exports Have Different Patterns over Different Regimes?:  
New Evidence from STAR-VECM**  
(국면전환을 고려한 수출변화에 관한 실증연구)

김세완(이화여대), 최문정

**(연구 배경)**

-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**세계교역 신장세의 둔화**가 지속
    - 이와 관련하여 **교역-소득간 관계의 구조적 변화**가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**경기의 국면전환(확장기-수축기)**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제기
  -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2년 이후 글로벌 교역둔화와 함께 수출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**교역과 그 결정요인(글로벌 GDP, 환율)간 관계변화**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짐
    - 그러나 선행연구는 대부분 기간별 장단기 소득탄력성의 변화 비교에 국한되어 있으며 **교역의 국면전환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**
- ⇒ 본 연구에서는 **수출의 확장-수축기 국면전환**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과 그 결정요인 간의 관계가 **비대칭적으로 나타남**을 확인하고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새로운 실증결과를 제시

**(분석 방법)**

- 우리나라 수출과 주요 결정요인간의 **장기균형 관계**와 수출의 단기적 **확장-수축기 간 비선형적 국면전환**을 반영한 Smooth Transition Autoregressiv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(STAR-VECM)\*을 도입

문의처: 최문정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(☎ 5540)

※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\* 국면전환 모형으로 널리 쓰이는 Markov switching 모형의 경우 통화정책변경 등 급작스런 국면전환 분석에 적합한 반면, STAR-VECM 모형은 국면전환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수출입 및 GDP 등의 실물거시경제 변수의 분석에 보다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짐

○ 1994년 1분기~2016년 4분기 기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에 대한 글로벌 GDP 증가율 및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변화율의 영향을 분석

### (분석 결과)

□ 공적분 추정결과, 수출과 그 결정요인의 장기균형 관계는 이론의 예측과 부합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됨

○ 우리나라 수출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GDP와 양(+)의 관계(장기탄력성 4.95), 실질실효환율과 음(-)의 관계(장기탄력성 -0.02)를 유의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남

○ 그러나 단기적으로 수출증가율이 확장기와 수축기 간 국면이 전환되는 패턴을 보이므로 비선형 수출증가율 결정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

□ STAR-VECM 추정결과, 수출증가율과 각 결정요인 변화율의 단기 관계는 수출증가율의 확장-수축기에 따라 비대칭적인 것으로 분석됨

○ 글로벌 GDP증가율과 우리나라 수출증가율간의 양(+)의 관계는 수출의 확장기에는 탄력적(단기탄력성 2.2)인 데 반해 수축기에는 비탄력적(단기탄력성 0.9)인 것으로 추정됨

○ 실질실효환율 변화율과 수출증가율의 관계도 확장기에는 실질실효환율의 절하가 수출을 증가(단기탄력성 -1.67)시키는 영향이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수축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하게 나타났음

(시사점)

-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의 국면에 따라 주요 결정요인의 영향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수출 전망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
  
- 수출의 확장기에는 글로벌 GDP와 실질실효환율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탄력적이나 수축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